
문서번호 : 17-긴급조치변호단-09-01
수 신 : 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
발 신 :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(담당:이유진간사, 조영선변호사)
제 목 : [보도자료]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기자회견
전송일자 : 2017. 9. 21.(목)
전송매수 : 총 2매

[보도자료]

긴급조치 시대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민주인권평화재단 회원 약 100여명과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.

- 일시 2017. 9. 22 (금) 10:30
- 장소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
- 주최 민주평화인권재단(준),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

1970년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모임인 (가)민주인권평화재단 소속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689차에 걸쳐 매일 아침 뜨거운 태양이 지글대는 여름에도, 찬바람 부는 겨울 한철에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퇴행하는 대법원, 대법원의 반역사적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등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.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재 하에서 사법부의 퇴행과 역주행이 두드러졌음을 고발하였습니다.

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오는 22일 퇴임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퇴임식에 맞추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반역사적, 반민주적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.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 시도나 판사블랙리스트 작성, 인사권의 오남용 등에 관한 조사와 형사 소추 등 문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. 이를 위해 과거 잘못된 판결 조사를 위한 법원 내 특별기구 설치와 사법부의 사과, 법원행정처의 근본 개혁을 통한 사법부 운영의 민주화와 공정 인

사, 각급 법관회의 설치를 통한 사법부의 투명한 의사결정 제도화와 사법부 지배구조의 분권화 개혁도 아울러 요구할 계획입니다.

이날 회견에는 장영달, 이철, 서상섭 전 의원, 조성우 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, 유영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이사장, 최민화 전 환경관리공단 감사, 김용석 전 철도공사 감사,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등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변호사들이 함께 합니다.

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입니다.

2017년 9월 21일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
(가)민주인권평화재단